

공대분관 설립가시화

원희재 기자 whj6470@khu.ac.kr

【국제】 지난 22일, 공대 분관 설립을 위한 ‘공과대학 한마음 발대식’이 열렸다. 공대 분관은 공대 앞 잔디마당에 건설 예정인 약 천 평 규모의 3층 건물이다.

공대 분관은 약 천 평 규모의 3층 건물로, 건설이 확정될 경우 공대 앞 잔디마당, 보행로, 차도 공간에 들어서게 된다. 지하 1층 융합실습실, 1층 중앙로비, 2층에는 약 300명 정원의 다목적 강의실, 그리고 옥상에는 카페테리아와 정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발대식 현장에는 홍충선 국제학부 부총장, 공대 최진환(기계공학) 학장, 공대 장호재(건축학 2018) 학생회장 등이 참석했다.

공대 분관 논의는 지난해 3월부터 시작했다. 예산은 총 130억 원 규모로, 이 중 80억은 교비로, 나머지 50억은 기금 모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모금 주관기관은 대외협력처로 지난 22일부터 모금을 받기 시작했다. 발대식에서 홍 부총장은 “조속한 공사와 미래 가치 실현을 위해 기금 모금에 많은 교내 구성원이 도움을 주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발대식에서는 구체적인 분관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2층에 만들어질 융합 라운지는 세미나 및 대형 강의실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대 분관 설계를 맡고 있는 건축학과 김동일(건축학) 교수는 “구성원이 쉽게 접근하고 행사, 휴식 등 다양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설계하려 했다”며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담고 더 높은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최 학장은 공대 분관을 통한 기대 효과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최 학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계공학부 개편과 더불어 12대 국가 전략 기술 분야에서 첨단전공 활성화에 있어서 공대 분관 건립은 큰 인프라가 될 것이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이어 최 학장은 “공대 분관 건립으로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연세대 및 한양대 등 타 학교에 비해 저조한 대학원 진학률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사가 완료되면 교원 20~30명 정도 더 신입 채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대 학생회장 장 회장은 “더 큰 규모의 강의실 확보를 통해 세미나 강연 등의 활성화 또한 기대해 볼 수 있다”며 소망을 밝혔다.



장 교수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수업에 들어올 때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커뮤니케이션센터 제공)

이론 넘어 경험의 중요성 강조

“한 명 한 명 소외받는 느낌 받지 않았으면”

추찬호 기자 changlon1212@khu.ac.kr

학생과의 소통 조별 활동, 에듀테크 적극 활용

2024 경희 Fellow 우수 교육③ 아동가족학과 장경은 교수

경희는 교육·연구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인 교원을 ‘경희 Fellow’로 선정한다. 교육 부문 우수 교원 3명 중 마지막으로 아동가족학과 장경은(유아교육전공) 교수를 만났다.

26일 찾은 장경은 교수의 ‘아동 안전관리’ 강의, 조를 나눠 교내 CCTV 설치 토론이 한창이었다. 학생들은 아동 안전을 위한 교내 CCTV 설치를 주제로 찬반을 나눠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반론을 이어갔다. 장 교수는 각 조를 돌아다니며 의견을 정리해 주고 새로운 생각을 제시했다.

장 교수는 학생과의 소통, 그리고 변화를 가장 중요한 교육 철학으로 삼고 있다. 장 교수는 “연구자이기 이전에 선생님으로서 기본에 충실하고자 했다”며 “경희 Fellow 선정은 이렇게 기본에 충실하려 했던 노력을 알아주신 것 같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학생과의 활발한 소통을 중시한다. 강의에서는 조별 활동을 적극 권장한다. 수업 중 모든 조를 돌며 학생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한다. 장 교수는 “소그룹으로 네 다섯 명 정도의 학생이 모여 같이 이야기하면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있다”며 “중요한 브레인스토밍 과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별과제의 단점도 존재한다. 무임승차와 불명확한 평가 기준. 장 교수는 이러한 단점을 줄이려 노력했다. 방법은 피어 리뷰(peer review, 동료평가) 방식의 적극 활용이다. “학생들이 자신의 조원에게 점수를 안 좋게 줬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를 깎지는 않는다. 긍정 평가를 내린 학생을 찾아 물어보는 등, 판단을 거친다”고 말했다.

더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장 교수는 ‘멘티미터’나 ‘패들릿’과 같은 학습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멘티미터는 발표 중 학습자 의견이나 답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다. 패들릿은 작업공간에 초대된 사람이 메모지를 붙여

공유하는 작업용 앱이다. 장 교수는 “적절한 학습 툴을 활용하면 조금은 소극적인 학생도 편하게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모의수업부터 놀이 과제까지 “다양한 시도 하고 싶다”

장 교수 강의는 유기적으로 변화한다. 지난해와 올해 수업이 똑같지 않다. “큰 틀은 같지만, 세부적인 부분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영유아교수방법론’ 강의에선 ‘모의수업’을 시도했다. 장 교수는 성신여대, 이화여대 유아교육과에 재직하는 동료 교수에게 자문받아 모의수업의 방식을 설계했다.

“졸업하면 일부는 교사로 나가게 돼 6주 실습을 하는데, 모의수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면 실습 기관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2학기에 영유아교수방법론 강의를 열리는데, 올해 2학기에도 모의수업을 진행할지는 지금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강의 중인 ‘놀이 지도’ 수업에서는 학생을 반으로 나누어 절반은 스스로 좋아하는 놀이를, 나

머지 절반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놀이를 하고 오도록 했다. 장 교수는 “놀이를 지도하려면 우선 놀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면 방 탈출을 즐긴 후 그 경험을 글로 작성해 보고, 그것을 공유해 서로의 놀이를 비교해 보도록 했다”고 말했다.

변화를 위해 학생 피드백도 적극 활용한다. 학기가 끝나고 진행하는 강의평가 외에도, ‘강의 중간 평가’를 실시한다. 장 교수는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에게 체감이 될 수 있는 중간 평가를 함께 진행하고, 실제로 남은 강의에 반영한다”고 말했다.

학생 입장에서 생각하며 아낌없이 주는 나무 되고파

장 교수는 학생에게 그저 베풀기 위해 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길 바란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수업에 들어올 때 소외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 수업을 듣는 시간이 인생에서 기억에 남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